2차전지

유럽 IAA(산업가속화법)의 함의와 한국 수혜 강도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10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 TP 518,000원 | CP 367,000원

삼성SDI(006400)
BUY | TP 469,000원 | CP 403,5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
Not Rated I CP 44,700원

유럽 내 공급망 구축 및 탈탄소 산업 육성안 담은 IAA 초안

3월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IAA(산업가속화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공공 재정을 활용해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철강,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에너지 多소비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EU는 해당 법안을 통해 GDP 내 제조업 비중을 2024년 14.3%에서 2035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다. 1) 전략 산업의 경우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보조금·융자·세제 등)에서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는 'Made in EU'(EU 또는 EU가 인정하는 국가를 원산으로 하는 부품·소재의 최소 비율 충족) 또는 '저탄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의 정확한 비율과 세부 계산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배터리 제외, 배터리는 별도 조항 신설)의 경우 최소 7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로컬 콘텐츠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2) 전략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요건을 강화한다. 제3국이 전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그 국가 기반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때 여러 조건(고용·로컬 콘텐츠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지분/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JV 포함)하고, 현지 R&D·핵심 공정·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기업이 모든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탈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 중간 단계에서 '묵시적 승인 원칙(tacit approval)'을 도입해, 진척 속도를 높인다. 4) 산업 가속화 구역(Industrial Acceleration Areas)을 지정해, '청정 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유럽 현지 투자 요건 강화

유럽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현지 생산기지 확대로 수익성에 압박을 받고 있다. 신규 투자 역시 중국계 자본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U가 IAA 제정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비유럽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FDI 요건에서 "제3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는 기준은 글로벌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견제 장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EU는 IAA 도입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IAA는 글로벌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차지한 국가의 해외 기업이 EU에 진출(투자)할 경우, 강화된 FDI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사 체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 투자 이후에도 EU 기업이 지배력을 유지하는지, 2) 현지 프로젝트가 전체 인력의 최소 50%를 EU 거주자로 채용하는지, 3) 로컬 콘텐츠를 사용하는지, 4) EU 역내에 R&D 센터와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지, 5) 핵심 기술 일부를 현지 법인과 공유 및 이전하는지 등을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배터리 셀, 양극재, BMS의 역내 생산 강조

한편, 이번 초안은 전기차·배터리 관련 로컬콘텐츠 요건을 세 갈래로 명확히 분리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EV용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에 대해 별도의 로컬콘텐츠 기준을 두고, EV용 배터리는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개별 조항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EV/EV용 배터리/ESS용 배터리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각각 로컬콘텐츠 요건을 설정했다. 3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차(BEV, PHEV, FCV) : 차량은 EU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동시에,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부품의 공장도가(工場渡價, 제품이 생산된 공장에서 출하될 때의 가격)를 기준으로 EU산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2) EV용 배터리 : 법령 시행 즉시 배터리 핵심 구성요소 중 셀을 포함한 최소 3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한다. 시행 3년 후에는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셀·양극재(CAM)·BMS를 포함한 최소 5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IRA처럼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의 개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또한, 어떤 부품을 배터리의 주요 구성요소로 볼지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178 Annex에 열거된 main specific components 리스트를 따른다. 해당 리스트에는 배터리 셀·모듈·팩, 양극/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집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이 포함됐다. 3) ESS용 배터리 : 법안 시행 1년 후부터 공공기관이 BESS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배터리 자체가 EU산이어야 한다. 또한 1MWh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BMS 역시 EU산이어야 하며, 기준은 입찰·공고 시점을 따른다.

IRA와의 차이 : 당근보다 채찍

IAA는 미국의 IRA와 정책 목표는 유사하지만 정책 수단과 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두 제도 모두 공공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의 로컬콘텐츠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IRA가 현지 생산·조달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생산량(kWh·톤 등)에 연동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라면, IAA는 EU 내 R&D 센터 설립과 현지 법인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며 기술의 역내 축적을 유도하는 보다 '강한 규제' 성격을 띤다. 즉, IRA가 현지 생산 확대를 유인하는 재정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다면, IAA는 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부 정책에 가깝다.

한국 배터리 기업 수혜 전망

향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규정의 수위나 시행 시점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능력(CAPA)을 보유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미 유럽 현지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역내 생산·고용·기술을 기반으로 'Made in EU' 요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EU와 포괄적 FTA를 체결한 주요 파트너로, 로컬 콘텐츠 판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또는 완화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유럽 현지화 전략이 미흡한 국내 업체의 경우 향후 로컬 콘텐츠 규칙과 FDI 조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IAA 시행 3년 이후부터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요 구성요소 중 최소 5개(셀·양극재·BMS 포함)를 EU산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중 현지 생산 거점 보유한 기업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 셀 메이커 3사는 모두 유럽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서 약 80GWh 수준의 CAPA를 기반으로 ESS 전환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증설을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헝가리에서 약 40GWh CAPA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주 물량(LFP·Mid-Ni·46파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SK온 역시 헝가리에 약 48GWh 규모의 CAPA를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게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CAPA는 약 1만 톤 수준으로, 향후 단계적인 증설이 예상된다. 이처럼 유럽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관련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도표 1. IAA(Industrial Accelerator Act) 주요 사항 정리(1)

구분	내용
도입 배경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Non-EU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
목적	공공재정을 활용해 유럽산 저탄소 기술·제품 수요를 늘려, EU 내 제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EU 내 가치 창출을 늘리고 산업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 (※ EU GDP 내 제조업 비중 확대 목표: 2024년 14.3% → 2035년 20%) (※ EU 내 일자리 창출 목표: 중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에서 약 15만개 수준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
대상 산업 (전략 산업 분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Net-zero 기술 분야(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전 등) (※ 필요 시 화학 등 기타 산업으로 확장 가능)
규제 및 지원 방식	**1. EU 공적자금/보조금 수취 시 'Made in EU' 또는 '저탄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Made in EU: 'EU' 또는 'EU가 인정한 *조달·무역 파트너' 원산으로 인정되는 부품·소재의 최소 비율 (로컬 콘텐츠) 충족 (※ 저탄소 요건 및 로컬 콘텐츠 요건의 정확한 비율·세부 계산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 예정) **2. *해외직접투자(FDI) 요건 강화** - 전략 산업에서 단일 제3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그 국가 기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 투자할 때 고용·기술이전·로컬 콘텐츠 조건을 의무화 **3. 산업 프로젝트 인허가 디지털화·간소화** - 단일 디지털 원스톱 창구(one-stop-shop) 도입: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모든 인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 - 명확한 시간 제한(법정 기한) 설정: 인허가 검토 및 결정에 엄격한 마감 기한을 설정 - 에너지多소비 탈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단계에서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원칙 도입 **4. 산업 가속화 구역(Industrial Acceleration Areas)을 도입해, 청정 제조 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는 투자자 대상 프로젝트 프로파일링(프로젝트별 투자·기술·입지 정보를 정리한 패키지 제공), 기술·인력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조달·무역 파트너	- EU와의 FTA·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 WTO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 중에서, 해당 조달분야에 대해 EU와 상호적인 시장개방 의무를 진 국가 (※ EU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로 남겠다고 밝히며,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국가에는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
*FDI 요건 상세 (6개 사항 중 1-1을 포함한 4개 항목 충족 필수)	**1. 고용 조건** 1) 현지 고용 비율(필수 조건) - 대형 FDI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 최소 50% 수준을 EU 거주 노동자로 고용할 것 - 생산직뿐 아니라 전체 인력(R&D, 엔지니어링, 관리 등 고품질 일자리) 합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2) 고급 인력·스킬 개발 의무 - R&D, 엔지니어링, 관리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무에서 EU 근로자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현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산학 협력 등을 통해 EU 내 인력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 **2. 기술 이전 조건** 1) 현지 R&D·엔지니어링 거점 설치 -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된 R&D 센터·엔지니어링 조직을 EU 내에 설치해야 함 - 연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예: 1% 이상)을 EU 내 R&D 지출로 집행해야 함 2) 핵심 기술·IP·노하우 라이선스 제공 - 핵심 공정·설계·소프트웨어 등 주요 기술의 사용권(IP 라이선스, 노하우 등)을 EU 법인에 이전·공유할 것 - 공동 연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운영 역량을 단계적으로 이전·공유할 것 **3. 로컬 콘텐츠 조건** 1) EU 및 파트너 원산 투입재 조달 비율 -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소재·서비스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을 EU 및 조달·무역 파트너 원산으로 조달할 것 2) EU 및 파트너 원산 투입재 조달 비율 - EU 내 공급망 참여(현지 공급업체 발굴, JV, 장기 구매계약 등)를 통해 EU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조달 구조·현지화 비중을 보고·검증받을 것.
향후 절차	해당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협상을 거친 뒤 채택·발효될 예정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IAA(Industrial Accelerator Act) 주요 사항 정리(2)

구분	내용	
자동차	적용 대상	신규 PEV(BEV), OVC-HEV(PHEV), FCV (공공조달·공적지원·법인차 대상)
	기본 조건	1. 차량은 EU 내에서 최종 조립될 것 2.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차량 부품의 *ex-works 기준 EU산 비중 ≥ 70% (*ex-works : 공장도가(제품이 공장을 떠나는 시점 기준의 가격을 뜻함))
	공공조달 대상 (*Part I)	* Part I: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이 차량을 직접 구매·리스·용역계약으로 사용할 때 상기 기본 조건 + 1. e-파워트레인 부품(ADAS, 인버터, e-액슬 등) 가치 중 EU산 ≥ 50% (3년 후 적용) 2. 주요 전자시스템(ECU, 통신, 섀시 전자장치 등) 가치 중 EU산 ≥ 50% (3년 후 적용)
	*공적지원·법인차 (*Part II)	* Part II: 정부가 민간·법인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구조 동일: “made in EU” 판단 시 상기와 동일한 조건 적용
	OEM 특례	직전 연도 EU 등록대수(PEV/OVC-HEV/FCV)의 85% 이상이 위 조건을 충족할 시, 다음 12개월 동안 해당 OEM의 PEV/OVC-HEV/FCV 전체 대수를 EU origin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 소형 전기차에도 특례 적용)
EV용 배터리	적용 대상	위 EV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traction battery)
	기본 요건	1. 배터리 주요 컴포넌트 중 최소 3개(셀 포함)가 EU산이어야 함(즉시 적용) 2. 주요 컴포넌트 최소 5개 EU산이어야 하며, 이 5개에 셀·양극재(CAM)·BMS가 포함되어야 함 (3년 후 적용) (※ 구체적인 주요 컴포넌트 목록과 분류는 후속 이행규칙에서 확정될 예정)
	판단 방식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이 아니라, 핵심 부품 “개수 기준”으로 EU origin 여부 판단
소형 전기차 특례 (M1E, Part III)	기본 조건 : EU 내 조립 + 그리고 아래 중(a,b) 하나 충족 (a)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이 70% EU산 또는 (b) 배터리 주요 컴포넌트 3개(셀 포함) EU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배터리 요건 완화) ※ OEM 특례: 직전 연도 EU 등록대수(PEV/OVC-HEV/FCV)의 85% 이상이 위 조건을 충족할 시, · 다음 12개월 동안 해당 OEM의 PEV/OVC-HEV/FCV 전체를 Union origin 충족으로 간주 가능	
ESS용 배터리	공공조달 대상 (시행 1년 후부터) (즉시 적용 X)	*공공조달: 공공기관이 BESS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예: 재생에너지+ESS, 송배전 보강 등) 1. 입찰공고 시점 기준으로, BESS는 EU origin이어야 함 2. 1MWh 초과 프로젝트는 BMS가 EU산이어야 함
	시행 3년 후 (조달·경매·지원 공통)	1. BESS는 EU origin이어야 함 2. 셀 + BMS + 추가 주요 컴포넌트 1개 이상이 EU산이어야 함
	재생에너지 경매	*재생에너지 경매: 발전·용량·유연성 자원 입찰에 BESS가 포함되는 경우 재생에너지 입찰에서 BESS가 포함될 때, 위와 동일한 EU origin + 셀/BMS/추가 컴포넌트 EU산 요건을 사전자격/평가기준으로 적용
	소비자·사업자 지원	가구·기업 대상 BESS 설치 지원 시, BESS 및 일부 주요 컴포넌트가 EU산일 때만 지원 또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가능하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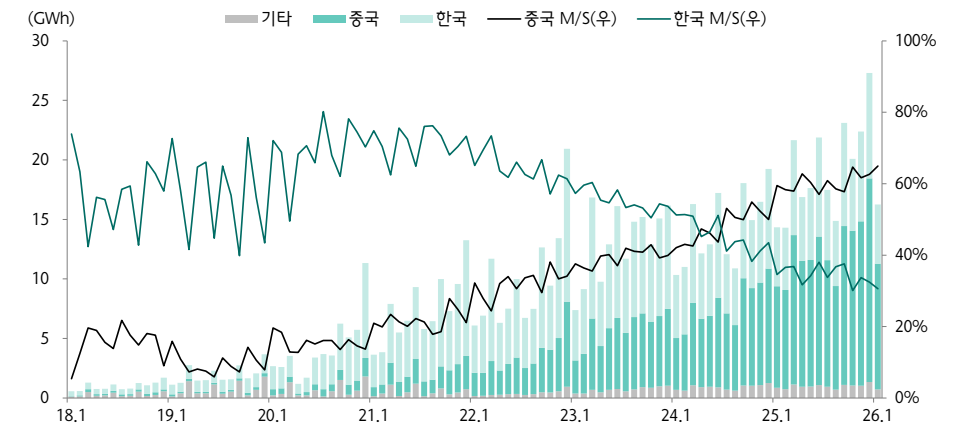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main specific components) 리스트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내용</th></tr>
<tr><td>IAA 초안</td><td colspan="4">(24) 'main specific components' means the main specific components as listed in the Annex to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5/1178[57];</td></tr>
<tr><td rowspan="2">[발췌]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 2025/1178」 부속서</td><td>분류</td><td>세부 분류</td><td>최종 제품</td><td>주요 핵심 구성요소(Main specific components)</td></tr>
<tr><td>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기술</td><td>배터리 기술</td><td>배터리</td><td>- 배터리 팩
- 배터리 모듈
- 배터리 셀
- 양극 활물질
- 음극 활물질
- 집전체(구리·알루미늄·니켈·탄소 포일 포함)
- 전해액
- 분리막
-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BTMS)</td></tr>
<tr><td>[원문]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178 Annex</td><td colspan="4">
<table>
<tr><td>Battery and energy storage technologies</td><td>Battery technologies</td><td>— Batteries (2)</td><td>— Battery packs
— Battery modules
— Battery cells
— Cathode active materials
— Anode active materials
— Electrolytes
— Separators
— Current collectors (including thin copper, aluminium, nickel and carbon foils)
— Battery management systems (BMS)
— Battery thermal management systems (BTMS)</td></tr>
<tr><td></td><td>Electrochemical storage technologies</td><td>— Ultracapacitors/ supercapacitors
— Redox flow energy storage</td><td>— Electrolytes
— Separators
— Collectors
— Electrode plates</td></tr>
<tr><td></td><td>Gravitational storage technologies</td><td>— Pumped hydro storage</td><td>— Reversible hydro turbines and pump runners
— Distributors with guide vanes</td></tr>
<tr><td></td><td>Thermal energy storage technologies</td><td>—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s</td><td>— Sensible heat storage and latent heat storage mediums (including phase change materials and molten salts)
— Thermochemical storage materials</td></tr>
</table>
</td></tr>
</table>

자료: EU Commission,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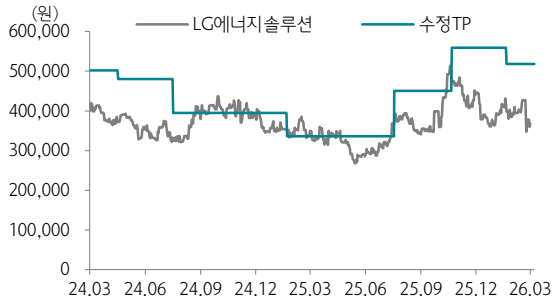
도표 4. 유럽 전기차 시장 내 국가별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 Research,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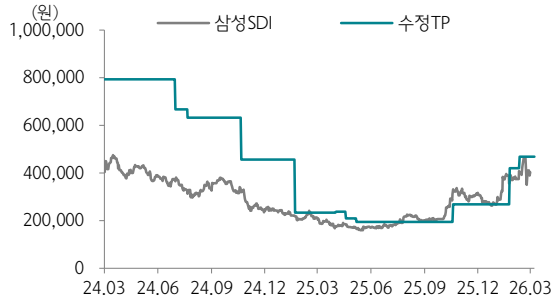
LG에너지솔루션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30	BUY	518,000		
25.10.31	BUY	559,000	-25.16%	-13.33%
25.7.28	BUY	450,000	-14.66%	14.22%
25.1.31	Neutral	336,000	-3.53%	-20.24%
24.10.29	Neutral	395,000	-3.37%	-12.78%
24.7.26	BUY	395,000	-3.77%	10.51%
24.4.26	BUY	480,000	-26.10%	-18.13%
24.1.29	BUY	502,000	-21.79%	-16.4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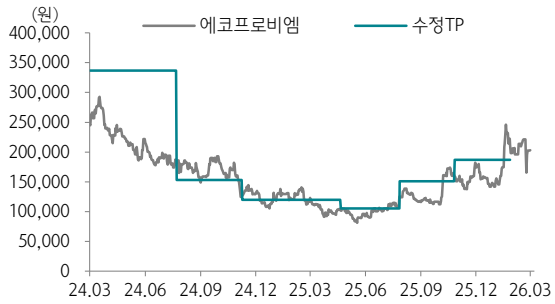
삼성SDI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20	BUY	469,000		
26.2.3	BUY	420,000	-8.65%	-2.86%
25.10.29	Neutral	268,000	15.57%	-2.05%
25.5.16	Neutral	195,000	1.79%	60.00%
25.4.28	Neutral	210,000	-17.31%	-12.57%
25.1.31	Neutral	233,010	-14.72%	3.78%
24.10.31	BUY	457,208	-44.86%	-27.73%
24.7.31	BUY	632,455	-46.46%	-40.02%
24.7.10	BUY	667,701	-48.31%	-42.89%
24.1.31	BUY	793,017	-49.75%	-40.0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코프로비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6	Not Rated	-	-	-
25.11.5	BUY	187,000	-11.68%	31.55%
25.8.6	BUY	151,000	-12.27%	15.30%
25.4.30	Neutral	105,000	-4.76%	18.57%
24.11.18	Neutral	120,000	-1.18%	-24.08%
24.8.1	Neutral	153,000	10.96%	-18.63%
23.11.8	BUY	337,000	-28.92%	-2.3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현수)는 2026년 3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08일